

2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읽기

◇ 개요: 니체(F. W. Nietzsche, 1844-1900)는 “신은 죽었다”라는 유명한 말로 알려진 철학자입니다. 서양철학 전통이 기독교와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그래서 신의 죽음을 선언한다는 것은 서양철학 전통 일반을 전복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니체 스스로 자신의 철학을 “망치로 부수면서 철학하는 것”이라고 한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셈이지요. 두 번째 주에는 문학적로나 철학적으로 명작인 그의 주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어볼 생각입니다.

◇ 키워드: 신의 죽음, 생성, 긍정, 영원회귀, 초인

1. 니체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1. 니체의 삶

1.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는 1844년 10월 15일 뢰켄(Röken)에서 루터교 목사의 첫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녀의 어머니도 목사의 딸이었다. 네 살 때 아버지가 죽자 니체는 할머니와 어머니 등 여인들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다. 1870년 25세에 지도교수 리츨(F. W. Ritschl)의 추천에 의해서 스위스 바젤(Basel) 대학의 고전어와 고전 문헌학 촉탁교수가 된다.

2. 니체가 가장 좋아했던 여인은 바그너의 부인, 코지마(Cosima)였다. 리스트의 딸이기도 한 그녀는 바그너가 좋아서 세 아이와 남편을 버리고 그와 결혼했을 정도로 열정적인 여인이었다. 니체는 그녀를 좋아했으며, 1872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녀에게 「쓰이지 않은 책들을 위한 다섯 개의 머리말」을 바쳤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녀는 니체를 ‘선생님’이라고 부를 뿐, 그의 속마음을 알지는 못한다. 정신병에 걸린 후 그녀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니체는 말한다. “아리아드네,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디오니소스.”

3. 1889년 1월 3일(혹은 1월 7일) 투린(Turin)의 카를로 알베르토 광장에서 44세의 니체는 마부에게 맞고 있는 말을 보고 달려들었는데, 말을 껴안으며 매를 막으려다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게 된다. 투린의 사건 이후 니체는 정신이상 징후를 보이기 시작한다. 그는 부르크하르트(Jakob Burchhardt)를 포함한 몇몇 친구들에게 기이한 편지를 보내게 된다. “결국에 나는 신이 되느니 차라리 바젤의 교수가 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세계창조의 과업을 단념할 수는 없습니다.”(1989. 1. 6 부르크하르트에게 보낸 편지)

4. 부르크하르트는 이 편지를 니체의 오랜 친구 프란츠 오버베크(Franz Overbeck)에게 보냈고, 오버베크는 바젤의 요양원으로 니체를 보내게 된다. 마침내 니체는 예나(Jena)의 정신병원으로 호송되었다. 얼마 후 병원을 나온 니체는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지만, 어머니는 곧 죽고 그

의 두 살 어린 여동생 엘리자베트의 손에 맡겨지게 된다. 엘리자베트는 자신의 오빠를 바이마르로 데리고 가서 방문객들에게 전시하게 된다. 물론 오빠의 철학을 히틀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선전하기 위해서였다.

2.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구성

1부: 신의 죽음과 위버멘쉬(Übermensch)

1부는 차라투스트라의 머리말로부터 시작되는데, 모두 22장으로 이루어진 차라투스트라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들 중 주목해야 할 것은 다음 설교들이다. 「세 가지 변화에 대하여」, 「저편의 또 다른 세계를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신체를 경멸하는 자들에 대하여」, 「천 개의 목표와 하나의 목표에 대하여」, 「창조자의 길에 대하여」 및 「베푸는 덕에 대하여」.

2부: 힘에의 의지

2부는 설교 형식보다는 다양한 만남과 그로부터 이루어진 대화가 주종을 이루며, 전체 2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핵심이 되는 대목은 「행복한 섬에서」, 「춤에 부치는 노래」, 「자기 극복에 대하여」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3부: 영원회귀

전체 16장의 이야기로 구성된 3부는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을 다루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영과 수수께끼에 대하여」와 「건강을 되찾고 있는 자」이다.

4부: 자신의 사상에 대한 오해를 방지

전체 20장으로 구성된 4부는 차라투스트라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지만 오해하고 있는 실패한 자유정신들과의 만남과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3.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훑쳐보기

1. 짐 깨나 지는 정신은 이처럼 더없이 무거운 짐 모두를 마다하지 않고 짊어진다. 그러고는 마치 짐을 가득 지고 사막을 향해 서둘러 달리는 낙타처럼 그 자신의 사막으로 서둘러 달려간다. 그러나 외롭기 짝이 없는 저 사막에서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난다. 여기에서 낙타는 사자로 변하는 것이다. 사자가 된 낙타는 이제 자유를 쟁취하여 그 자신이 사막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 [...] 정신이 더 이상 주인 또는 신이라고 부르기를 마다하는 그 거대한 용의 정체는 무엇인가?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 그것이 그 거대한 용의 이름이다. 그러나 사자의 정신은 이에 맞서 “나는 하고자 한다”고 말한다. [...] 새로운 가치의 창조. 사자라도 아직은 그것을 해내지 못한다. 그러나 새로운 창조를 위한 자유의 쟁취, 적어도 그것을 사자의 힘은 해낸다. [...] 그러나 말해보라, 형제들이여. 사자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어린아이는 해낼 수 있는가? 왜 강탈을 일삼는 사자는 이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는가? 어린아이는 순진무구요 망각이며 새로운 시작, 놀이, 스스로의 힘에 의해 돌아가는 바퀴이며 최초의 운동이자 거룩한 긍정이다. 그렇다 형제들이여, 창조의 놀이를 위해서는 거룩한 긍정이 필요하다. 정신은 이제 자기 자신의 의지를 원하며, 세계를 상실한 자는 자신의 세계를 획득하게 된다.(Za I, 세 단계의 변화에 대하여, 한글판 39:8-41:8/ 독일어판 26:3-27:15/ 영어판 26:23-27:35)

2. 유일자, 완전자, 부동자, 충족자, 그리고 불멸자에 대한 이러한 가르침 모두를 나는 악이라고 부르며 인간적대적이라고 부른다! 불멸의 존재. 그것도 한낱 비유에 불과하다! 시인들은 너무도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상의 비유라고 한다면 마땅히 불멸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과 생성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비유는 일체의 덧없는 것들에 대한 찬미가 되어야 하며 정당화가 되어야한다!(Za II 행복한 섬에서, 한글판 141:24-142:13/ 독일어판 106:18-106:31/ 영어판 86:25-87:2)

3. 일찍이 사람들은 먼 바다를 바라보고는 신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나 너희들을 가르쳐 위버멘쉬(Übermensch)를 이야기하도록 했다. 신이란 하나의 억측에 불과하다. 나는 이 억측이 너희들의 창조의지를 뛰어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Za II 행복한 섬에서, 한글판 140:15-140:20/ 독일어판 105:9-105:15/ 영어판 85:28-85:34)

4. 사람들은 그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사물들에 가치를 부여해왔다. 먼저 사물들에 그 의미를, 일종의 인간적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다! 그들 자신을 “사람”, 다시 말해 “가치를 평가하는 존재”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치평가, 그것이 곧 창조행위다. 귀담아 듣도록 하여라. 창조하는 자들이여! 평가된 모든 사물에게는 가치평가 그 자체가 가장 소중한 보물이요 귀중한 물건이니. 평가라는 것을 통하여 비로소 가치가 존재하게 된다. 그런 평가가 없다면 현존재라는 호두는 빈껍데기에 불과할 것이다. 귀담아 듣도록 하여라, 창조하는 자들이여! 가치의 변천. 그것은 곧 창조하는 자들의 변천이기도 하다. 창조자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자는 끊임없이 파괴를 하게 마련이다.(Za I 천개의 목표와 하나의 목표에 대하여, 한글판 99:6-99:17/ 독일어판 71:19-71:27/ 영어판 59:16-59:27)

5. 보라, 나는 너희들에게 위버멘쉬를 가르치노라! 위버멘쉬가 이 대지의 뜻이다. 너희들의 의지로 하여금 말하도록 하라. 위버멘쉬가 대지의 뜻이 되어야 한다고! 형제들이여, 맹세코 이 대지에 충실하라.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을 설교하는 자들을 믿지 말라! 그런 자들은 스스로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독을 타 사람들에게 화를 입히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을 생명을 경멸하

는 자들이요, 소멸해가고 있는 자들이며 이미 독에 중독된 자들인 바 이 대지는 그런 자들에 지쳐있다.(Za I 머리말 3, 한글판 18:3-18:9/독일어판 8:28-9:3/ 영어판 13:3-13:10)

6. 너희들이 세계라고 불렀던 것, 그것도 너희들에 의해 먼저 창조되어야 한다. 이 세계가 너희들의 이성, 너희들의 이미지, 너희들의 의지, 너희들의 사랑 안에서 형성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진정 너희들이 지복을 누리도록,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고 있다는 자들이여! [...] 너희들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어떤 것이나 비이성적인 어떤 것에 뿌리를 두고 있어도 안 된다.(Za II 행복한 섬에서, 한글판 141:9-141:15/ 독일어판106:3-106:9/ 영어판 86:10-86:16)

◆ 니체를 이해하는 데 열쇠가 되는 구절 (AC 2: KGW VI 3, 168쪽) ◆

좋은 것은 무엇인가? — 힘의 느낌, 힘에의 의지, 인간 안에서 힘 그 자체를 증대시키는 모든 것.
나쁜 것은 무엇인가? — 약함에서 비롯되는 모든 것.
행복이란 무엇인가? — 힘이 증대된다는 느낌, 저항이 극복되었다는 느낌.

7. 모든 것은 가며, 모든 것은 되돌아온다. 존재의 바퀴는 영원히 돌고 돈다. 모든 것은 시들어가며, 모든 것은 다시 피어난다. 존재의 해는 영원히 흐른다. 모든 것은 부러지며, 모든 것은 다시 이어진다. 똑같은 존재의 집이 영원히 지어진다. 모든 것은 헤어지며, 모든 것은 다시 만나 인사를 나눈다. 존재의 바퀴는 이렇듯 영원히 자신에게 신실하다. 매순간 존재는 시작된다. 모든 여기를 중심으로 저기라는 공이 굴러간다. 중심은 어디에나 있다. 영원이라는 오솔길은 굽어있다. [...] 나 다시 오리라.이 태양과 이 대지, 이 독수리와 이 뱀과 함께. 그렇다고 내가 새로운 생명이나 좀 더 나은 생명, 아니면 비슷한 생명으로 다시 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더없이 큰 것에서나 더없이 작은 것에서나 같은, 그리고 동일한 생명으로 영원히 돌아오는 것이다. 또 다시 만물에게 영원회귀를 가르치기 위해서 말이다.(Za III 건강을 되찾고 있는 자 2, 한글판 364:1-370:2/ 독일어판 268:31-273:8/ 영어판 217:29-221:21)

8. 신체를 경멸하는 자들에게 나 나의 말을 하련다. 저들로서는 이제 와서 마음을 바꿔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전과 다른 새로운 가르침을 펼 필요가 없다. 그 대신에 자신들의 신체에게 작별을 고하고 입을 다물면 된다. “나는 신체이자 영혼이다.” 어린아이는 그렇게 말한다. 어찌하여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이야기하지 못하는가? 그러나 깨어난 자, 깨우친 자는 이렇게까지 말한다. “나는 전적으로 신체일 뿐, 그 밖의 아무 것도 아니며, 영혼이란 것도 신체 속에 있는 그 어떤 것에 붙인 말에 불과하다”고. 신체는 커다란 이성이며, 하나의 의미를 지닌 다양성이고, 전쟁이자 평화, 가축 떼이자 목자이다. 형제여, 네가 “정신”이라고 부르는 그 작은 이성, 그것 또한 너의 신체의 도구, 이를테면 너의 커다란 이성의 작은 도구이자 놀잇감에 불과하다. 너희들은 “자아 Ich[나]” 운운하고는 그 말에 긍지를 느낀다. 믿기지 않겠지만 그 자아보다 더 큰 것들이 있으니 너의 신체와 그 신체의 커다란 이성이 바로 그것들이다. 커다란 이성, 그것은 자아 운운하는 대신에 그 자아를 실천한다.(Za I 신체를 경멸하는 자들에 대하여, 한글판 52:7-52:24/ 독일어판 35:1-17/ 영어판 34:1-34:20)